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군민 소통
위해 수어 통역 업무협약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29일 부안군 수어통역센터(센터장 김은경)와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의회 본회의 생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박병래 의장은 "모든 군민은 동등하게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언어장애 군민도 군정 현안을 더욱 가깝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오는 9월 2일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 부속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할인율 10%→15% 확대

부안군은 9월 1일부터 부안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국비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군민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안사랑상품권은 군민들이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해 지역 내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계 부담은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군민·소상공인·지역경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 정책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 할인율 상향 조치로 군민은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어 체감 혜택이 커지며 소상공인은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군은 올해 하반기에 발행 예정인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상당 부분을 15% 할인율로 공급해 지역 소비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내장산 교통 · 주차난 시로 해결

정읍시, 관광공사 실증지 선정... AI로 교통 혼잡 · 관광객 동선 등 5대 문제 해결

정읍시는 내장산국립공원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 관광AI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실증지로 최종 선정되며, 관광 교통과 주차난 등 오랜 과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장산국립공원 스마트관광 실증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관광공사가 집행하고 시는 행정과 현장 지원을 맡는다. 관광공사가 실증사업을 직접 선정하고, 선정 기업이 AI 솔루션 개발과 운영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관광공사·실증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장산에 도입될 AI 서비스는 △AI 지도 : 주요 관광지·편의시설 위치 안내 및 맞춤형 탐방 경로 제공 △AI 관광객 밀집도 분석 : 내·외국인 관광객 실시간 집계, 구역별 혼잡도 분석 △AI 주차 혼잡도 : 주차장 혼잡도·빈자리·소요시간 안내 △AI 안전 : 현장 안전 상황 실시간 지원 △AI 다국어 안내 : 안내소 통역 지원 및 표지판 이미지 번역 서비스 등 다섯 가지다. 이를 통해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와 안전 강화, 외국인 편의 증진을 동시에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광주 '추억

의 충장축제'를 시작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확대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상시 관광 서비스형 분야)과 월드커피리더스포럼&카페쇼(MICE분야)를 실증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내장산은 순천만국가정원에 이어 두 번째 상시관광서비스형 실증지로 지정되며, 국가정원과 국립공원이라는 대표 관광지가 나란히 AI 전환을 실현하게 됐다.

시는 이번 성과를 이학수 시장이 강조해온 데이터 기반·현장 중심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를 이끌며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행정안전부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발로 뛰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협회장, 행안부 · 국회 연이어 방문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이하 전국원전동맹)를 이끌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건의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는 등 원전 인근지역 주민 권익 보호와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찾아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함께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된 5개 지자체(부안·고창·삼척·양산·유성구)에 대한 별도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는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는 방재 대책법상 비상계획구역이 30km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재정 보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익현 군수는 "주민 안전은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책임으로 30km 이내 지자체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과제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해 전국원전동맹 대표로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전국원전동맹은 23개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공동성명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주민의 안전 확보를 촉구한 바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난 29일 문화행정국 정례브리핑 개최

가을 전시 · 축제 · 평생학습 · 재산세 등 생활 밀착형 일정 공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정읍시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언론인 대상 문화행정국 정례브리핑을 열고 가을 전시·축제와 평생학습, 재산세 등 생활 밀착형 일정을 공개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은 고창희 문화행정국장이 직접 주요 업무와 현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창희 국장은 먼저 가을 문화 일정을 소개하며 "시립박물관에서 열리는 국보순회전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읍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 특별전도 지역 문화의 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월 25~28일 운영되는 정읍 사문화제의 기획 방향도 공개했다.

역사·교육 분야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선양 사업과 고사부리성 복원, 학교박물관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짚으며 청소년 글로벌 탐방과 평생학습 확대 계획을 통해 세대별 문화·교육 기회를 넓히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실생활에 필요한 세정 일정도 안내했다. 시는 오는 9월 9일 토지·주택 27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라고



일했다.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가상계좌·ATM,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8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 찾아가는 결산설명회를 이어가며 재정 정보를 폭넓게 공개할 계획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실시시설 계층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했으며, 2025년 9월 중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은 고창군이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국토부,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 · 운영 협약

고창군과 국토교통부가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일원에 조성 중인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일원에 드론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공식화하고, 운영과 관리,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63억원이며, 대지면적 89,602㎡ 규모로 드론통합지원센터(비행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 활주로 및 실시간협장등을 구축하며, 센터를 이용하는 연간 교육인원 1,000여명, 자격시험 인원 1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창군은 2024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실시시설 계층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했으며, 2025년 9월 중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은 고창군이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의료 · 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정읍시가 지난 29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문가 28명을 위촉해 지역 맞춤형 통합 돌봄정책 추진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심의와 자문을 맡아 어르신이 평생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위촉식은 1부에서 인사발령과 위촉장 전달, 기념촬영이 진행됐고, 이어 2부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향후 운영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협의체는 △이학수 시장 △북지환경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장 등 당연직 5명과, 병·의원·약국·요양기관·복지관·학계·통합전문가 등 위촉직 21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읍시 조례에 따라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 △관련 기관 협력 등을 심의·자문하며 정읍시 정책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출범과 함께 정읍형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